

YONHAP | 연합르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Travel

Tonle Sap Lake

■ 사진/김주형 기자·글/장성배 기자, 협찬/코리아트래블(www.korea-travel.co.kr)
해맑은 영혼이 은빛 물결을 저어간다. 제 몸집보다 두 배는 큼직한 노를 수면에 꽂아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거룻배를 부리기엔 아직 이른 나이인데, 어린 누이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픈 모양이다. 소년의 가녀린 팔뚝에 힘이 차오를 때마다 어린 누이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사랑도 저러하리라! 누구나 갈망의 대상을 내 자의식 안으로 이끌고 싶은 법이다.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그 이끌림은 물결처럼 출렁이며 솟구치고 가라앉기를 반복한다. 앙코르 유적의 물적 토대가 되어준 톤레 샵(Tonle Sap) 호수에서 만난 아이들의 초롱 초롱한 눈망울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톤레 샵 호수에는 수상가옥이 즐비하다. 갈대와 아자수로 열기설기 쉬운 원두막부터 합판과 철재로 지은 건물까지 모습이 다양하다. 캄보디아에는 태풍이 없어 수상마을 사람들은 우기에도 집이 날아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수상마을은 호수 생태계의 작동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뤄낸다.
학교, 경찰서, 우체국, 교회, 레스토랑 등 지상의 마을과 다를 바 없는 구조다. 또한 집집마다 자가발전용 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TV 안테나는 거의 모든 집에 설치돼 있지만 화장실은 태반이 없다. 사람의 배설물은 물고기 밥이 되고, 그 물고기는 다시 사람의 밥이 된다.



날이 어둑어둑해도 톤레 샵 호수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호수는 집이나 마친가지였다. 바다처럼 드넓은 마당을 가진 별거숭이들은 고무대야를 타고 노느라 여념이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수상마을에도 선착장 겸 레스토랑이 곳곳에 위치한다. 전망과 시설이 좋은 곳은 해질 무렵이면 낙조를 보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신들의 빈집에서 시작된 여정은 붉게 물들어가는 호수에서 마감되었다. 앙코르 유적과 톤레 사프 호수처럼 만남과 헤어짐은 서로 달아 있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인가 보다.

톤레 사프 호수는 바다와 다를 바 없다. 망망대해처럼 시선이 닿지 못하는 곳에 수평선이 펼쳐진다. 바다처럼 밀물과 썰물도 일어난다. 그 주기가 하루가 아니라 일년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호수는 앙코르 유적지 남쪽에 자리하는데, 둘 사이의 거리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다. 건기에 호수로 유입되는 물이 줄어들면 호수는 유적지로부터 밀려나 멀어진다. 수심도 1~2m로 낮아진다. 하지만 우기에 접어들면 호수는 크게 부풀어 올라 유적지 턱밑까지 차오른다. 호수 면적이 건기보다 서너 배 이상 넓어진다. 호수가 반년을 주기로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것은 메콩강 때문이다. 인도차이나반도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이 우기에 유량이 늘면 톤레 사프 호수로 강물을 역류시킨다. 그리고 역류된 물길을 따라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온다. 건기에 햇빛을 잘 받고 자란 수풀은 물에 잠겨 물고기들의 산란처가 된다. 호수는 그야말로 어족자원의 보고가 되는 셈이다. 양리 무어도 “호수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 노를 저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적었다.

현재 캄보디아 인구 10명 중 1명은 톤레 사프 호수에 기대어 살아간다. 낚시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수상우리에서 돼지도 치며, 창가 화분에 꽃을 기르면서 일상을 꾸려간다. 물론, 수상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은 관광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부 일본인 관광객들은 이곳에 오면 마스크를 쓰고 면장갑을 낀다. 수상마을의 남루함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인류 문명의 보고인 앙코르 유적이 수상마을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불가사의로 여긴다. 오만과 무지의 소산일 수 있다. 문명은 환경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톤레 사프 호수에서 잡히는 민물고기 리엘(Riel) 저갈의 독특한 냄새처럼 수상마을 사람들은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들만의 자존감과 행복관으로 오늘을 밀고 나아간다. 시대의 격랑을 헤쳐오면서 얻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에도 새살을 돋우는 생명력으로 충만했다. 강성한 밀림과 풍요로운 호수, 광활한 늪지대 위에 인간의 꿈을 구현시킨 크메르인들의 후예다웠다.

캄보디아 여행 Tip 코리아트래블의 앙코르 와트 여행상품은 서울(인천공항) 또는 부산(김해공항)에서 출발한다. 서울은 월, 화, 목, 금요일에 출발하며 가격은 64만9000원이다. 부산은 수, 토요일에 출발하며 가격은 72만9000원이다. 씨엠립까지 프로그래스멀티항공(PMT Air-U4) 직항편을 이용한다. 코리아월드트래블 서울사무소 02-3705-8800, 부산사무소 051-441-2626

[▲ top](#)